

##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중간보고서

착륙 중 강풍에 밀려 저수지로 추락  
개인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Explorer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197 도곡 저수지  
2021. 1. 24.



2022. 1. 24.

# 서산패러글라이딩사고 중간보고서

## 가. 사고

- 운영자 : 개인
- 제작사 : 진 글라이더(GIN Gliders), 대한민국
- 형식 :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 신고번호 : 신고대상 아님
- 발생장소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197 도곡 저수지  
36°42' 32.34" N , 126°23' 56.89" E
- 발생일시 : 2021년 1월 24일 16:12경(한국시각)

## 나. 개요

2021년 1월 24일(일) 16:14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도비산 이륙장에서 이륙한 개인 패러글라이더 조종자가 자유비행 후 도곡 저수지 서쪽제방 위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강풍에 밀려 저수지 물속으로 추락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조종자는 저수지에 빠져 사망(익사)하였다.

## 다. 사실 정보

### 1. 비행 경위

2021년 1월 24일 오전 11:00경, 조종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에 위치한 도비산 이륙장에서 비행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사고 당일 오전에 이륙장 인근에서 만나 비행을 준비하였다.

조종자와 지인은 오전에 바람이 약해 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행하지 않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도비산 이륙장에서 비행하기로 하였다.

이륙장은 도비산(해발 352.8m)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능선의 중간 약 950m 지점, 해발고도 약 233m에 위치해 있다.

14:30경 지인은 도비산 이륙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동쪽의 개활지 방향으로 먼저 이륙하였고, 조종자가 그 다음에 이륙하여 각자 자유비행을 하였다.

조종자는 동쪽으로 이륙하여 도비산 정상 인근에서 비행하던 중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기체가 도비산 정상에서 이륙장 서쪽으로 밀려 이륙장 동쪽의 착륙예정지가 아닌 서쪽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종자는 16:14경 도곡 저수지 서쪽제방에 착륙하기 위해 천천히 강하하여 착지하려는 순간, 고도 약 1m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불어온 강한 서풍에 의해 저수지 제방의 수변경계에 착지하였다.

조종자가 제방의 저수지 수변경계에 착지한 순간, 캐노피가 펼쳐진 상태에서 계속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풍하(저수지 중앙) 쪽으로 끌려갔고 조종자는 하네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속으로 빠졌다.

목격자 진술서에 따르면, 조종자는 하네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상태로 바람에 떠밀려 저수지를 가로질러 약 150m 거리의 반대편인 동쪽 가장자리까지 밀려갔다.

한편, 먼저 이륙한 지인은 비행하면서 조종자가 도비산 정상 인근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몇 차례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비행 중 우연히 도곡 저수지에 추락하는 패러글라이더를 목격하였다.

지인은 추락한 패러글라이더를 목격한 순간 동행한 조종자일 것 같다는 느낌에 16:20경 급히 저수지 인근 논에 착륙하여 구조장소로 달려가서 조종자를 확인하였다.

16:20경, 119안전센터 구조대원은 추락 현장에 도착하여 서풍에 의해 밀려 추락지점의 반대편인 저수지 동쪽가장자리 쪽으로 밀려오는 조종자를 물에 들어가서 구조하였다.

조종자는 물속에서 하네스를 착용한 상태로 장비와 얽혀있었다. 구조대원은 페리글라이더 장비의 산줄 일부를 절단한 후, 조종자를 구조하여 바닥에 눕힌 후 심 정지 상태의 조종자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16:39경,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추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조종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16:54경 조종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근의 서산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일 119 소방 출동은 16:14경, 충남 종합상황실 119로 신고 접수되어 충남 서산소방서 산하 지역안전센터(부석119안전센터, 성현119안전센터)에서 구조·구급인원 9명, 차량 4대(구급차, 펌프차, 탱크차)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자를 구조하였다.

## 2. 인명피해

조종자 1명이 사망(익사)하였다.

## 3. 초경량비행장치 손상

초경량비행장치의 손상은 없었으나, 조종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일부가 절단되어 파손되었다.

## 4. 기타 손상

기타 손상은 없었다

## 5. 조종자 관련 사항

조종자(남, 67세)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평소에 같이 비행해 왔던 지인과 사고 전날 비행하기로 약속하고 당일 오전에 도비산 활공장 인근에서 만났다.

조종자는 약 20년 비행경력 of 상급 기량을 갖추었고, 취미를 목적으로 비행하는 조종자로서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 조종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종자는 일주일에 1~2회 비행하였고, 경기도 양평소재 미래항공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이론교육, 비행훈련 교육을 5년 정도 받았다.

## 6. 초경량비행장치 정보

조종자가 사용한 패러글라이더는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고 및 안전성인증 검사 대상이 아니며,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았다.

## 7. 기상 정보

당일 14:40부터 16:30까지 기상청 서산 기상관측소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로 측정한 기상은 맑은 날씨에 강수 현상이 없었고, 16:10경 10분 평균 풍향과 풍속은 북동풍 약 3.3m/s이고 기온 12도, 습도 43%였다.

기상정보에 따르면 당일은 겨울이지만 비교적 포근한 날씨였다. 지면부근이 더워지면 대기 상층에는 겨울철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어 기온차가 심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위아래로 뒤섞이면서 기류 변화가 크고 거칠어진 난기류나 돌풍이 발생한다.

사고 당일 이착륙장 기상정보는 비행하는데 적합한 날씨였다.

## 8. 기타

위 중간보고서는 사실조사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사고원인과 안전권고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간보고서의 사실조사내용은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모든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조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사고 조사와 관련한 안전권고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